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7일 화요일 음 5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5℃, 낮 최고기온은 28-32℃로 예상된다. 당분간 북·동부지역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덥겠으니 외출 시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30	해질 19:47	달뜨기 23:53	달지기 12:06
물때 만조 03:06	간조 15:42	간조 10:02	만조 22:00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흐리고 비 24/32℃

모레 ☀️ 구름많음 23/32℃

월드뉴스

러, 나토 정상회담 앞두고 우크라 키이우 공습

최소 11명 사망·61명 부상

러시아가 6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현지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10명, 수도 북서쪽 부차 지구에서 1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수도에서는 최소 46명이, 주변 지역에서는 15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공습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공격 시점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대규모 공습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키이우 소방대원들.

공습에 앞서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 독립기념일 직후이자 나토 정상회의 직전 공격하는 것이 푸틴의 방식”이라고 비판한 바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의도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점유 시설 등 민간 인프라를 정밀 타격하자 이에 대응해 키이우를 공격 목표로 삼는 대규모 공습을 벌이고 있다.

데스크칼럼



고 대 로
편집국장

이달 1일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출범했다.

이에 따라 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올해 안에 인사가 예정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은 6곳에 이른다.

이중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제주개발공사 차기 사장 인선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를 기반으로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제주 대표 공기업이자, 도민의 자산을 운영하는 핵심 공기관이다. 사장의 리더십에 따라 조직의 미래

제주개발공사, 위기 돌파할 리더십이 필요하다

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제주개발공사 사장에는 기업 임원 출신과 공무원 출신이 번갈아 임명돼 왔다. 기업 임원 출신들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성과 중심 문화를 도입하며 혁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일부는 조직 문화와 공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한 경영을 추진하거나,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노조와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법인가드가 집중 결재된 사례 등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의 신뢰를 잃은 경우도 있었다.

반면 공무원 출신 사장들은 제주도정과의 협력에 감점을 보였다.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리 중심의 경영에 머물면서 공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을 만드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처한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삼다수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경영 효율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경영이 필요한 시기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400억원 감소했다. 한마디로 '비상경영'의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외부 인사 영입보다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내부 인재를 발탁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부 출신은 공사의 조직문화와 사업 구조, 현안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곧바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개발공사

전 상임이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란만으로 인사의 적격성 자체를 단정 짓거나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제주개발공사는 단순한 지방공기업이 아니다. 제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차기 사장 인선은 선거 공신 발탁 등 정치적 고려나 외부 인사 영입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 처한 위기 속에서도 안정과 변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리더다. 제주개발공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내부 발탁이라는 선택지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열린마당

공정한 인사가 도민 신뢰의 출발점이다



변 경 준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새로운 도정의 출범은 제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는 공정한 인사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인사는 조직 운영의 출발점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공정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반면 불공정한 인사는 조직 내부의 갈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까지 떨어뜨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사회는 정치적 논리나 사적

인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주요 보직과 인사는 선거 기여도나 개인적 인맥이 아니라 전문성과 업무 역량, 도덕성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무원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이 아닌 도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공복이다. 따라서 인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한 인사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할 것이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며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공정한 인사는 누구에게 배후는 배려가 아니라 도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다. 새로운 도정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주길 공직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일상을 함께 돌보다



김 민 지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지원팀

장애로 인해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일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양육과 가사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돌봄 체계가 부족한 1인 가구 여성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1순위는 활동지원사와 가사도우미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38.0%), 2순위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20.9%)로 나타났다.

다. 대다수의 여성장애인에게 가사와 양육 지원은 삶의 질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중인 여성장애인이거나 일상 유지가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파견해 자녀 돌봄, 청소, 식사 준비 등 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2004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616명에게 총 3만242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이 사업은 단순한 가사 지원을 넘어 여성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돌봄 체계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돌봄 공백으로 소외받는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것이다.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TEL. 753-5347

고리파이프상사

고리파이프상사 7월 11일(토) 개업

- ◆ HI-3P상·하수도관(고리)
- ◆ PE관 상·하수도관(미래화학)
- ◆ 제수밸브 등 밸브류 일체(신진전공)
- ◆ 이탈리아 부속 하수도 맨홀 등(대광주철)
- ◆ 각종 친환경 상·하수도 부속 일체 도·소매 (주)YDI

대표 이창빈

고리파이프상사

제주시 번영로 116 Tel. (064)721-8400 Fax. (064)721-8401 HP. 010-3696-4114

고리파이프상사

- SK주유소
- 안전LPG